

‘관광 여수’ 뜨니 경제 유발효과 ‘톡톡’

2년 연속 관광객 1300만명
숙박·문화산업 등 10% 성장
관광산업 발전에 지역경제 활기

지난해 2년 연속 1300만 관광객 유지 목표를 달성한 여수시가 비약적인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수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은 총 1316만 명으로 2년 연속 관광객 1300만명 달성은 물론 5년 연속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여수를 방문했다.

2016년 주요 관광지별 방문객 집계결과 엑스포 해양공원(307만여명)이 가장 많았고 오동도(277만여명), 돌산공원(247만여명)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방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방법으로 공인계측 시스템을 통해 주요 관광

빅데이터로 분석한 경제유발 효과

일반숙박업 1년만에 60곳 증가
외식업 270곳·문화산업 27곳 1
일자리 940여개 늘어 고용창출

지점 입장객 수치를 작성하고 있다. 문체부가 지정한 여수지역 42곳의 관광지점(유료 25, 무료 17)은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때 정비돼 지금까지 적용받고 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는 여수시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국내 통신사에 용역을 의뢰한 빅데이터 분석에서 확인됐다.

시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년간 A통신사 위치정보 및 신용카드사 매출정보를 이용해 방문객 수와 주요 관광지별 매출액을 분석했다.

일별 방문객 수 계산을 위해 통신사 정보와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했고 일평균 방문

객 수와 평균 체류일수(한국관광공사 관광객 평균 숙박일수 1.24박) 등을 적용했다. 조사결과 일 방문객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타지에서 여수를 찾은 총 방문객수는 1300만 명으로 추산 집계됐으며 분석당시 여수시민과 여수국가산단 출퇴근 인원은 모두 제외됐다.

관광지별 매출액은 주변 상권별 이순신광장이 가장 높았고 돌산회타운, 박람회장, 향일암 순으로 매출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수시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실시한 관광 및 연관 산업 사업체 일자리 수 조사결과에서도 1년 후인 2016년 9월 일반 숙박업이 60곳 증가한 340개, 외식업은 290곳 증가한 578개, 문화산업은 27곳 증가한 327개소로 파악됐다.

특히 지역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는 일자리수가 1만3346개에서 940여개 증가한 1만4287개로 크게 늘었으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인허가 승인도 2015년 19곳(366실), 2016년 44곳 (765실), 2017년 3월 현재 11

곳(330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일반 숙박업과 문화산업, 관광숙박업, 농어촌 민박 등은 평균 10%이상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중 여수시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은 “관광객 통계에 거북선축제(34만명) 여수불꽃축제 (26만명)등 주요 축제 방문객들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미래에셋의 1조원 이상의 투자유치가 여수관광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현주소를 보여주는 성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민선 6기 들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급부상한 여수시는 앞으로 관광산업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여내는 관광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은 물론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명품 해양관광도시로 대도약할 계획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역 관광산업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서

올 전국 첫 노지 모내기

순천시는 “지난 10일 해룡면 신성리에서 올해 전국 첫 노지 모내기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첫 모내기는 해룡면 신성마을 이중만(60)씨의 0.3ha 논에 기라라 397(극조생종) 품종을 심었으며, 농업인, 농업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조기재배로 수확한 벼는 추석 전 ‘하늘아래 첫쌀 순천햇쌀’ 브랜드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순천지역의 벼 조기재배는 1959년 해룡면 구상마을 신준호씨가 최초로 재배한 이후 59년동안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고시히까리’ 품종으로 조기재배 단지 120ha를 조성해 조기햇쌀 690여 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상하수도료 장기체납자 이달부터 단수조치

순천시, 강력 징수 나서기로

순천시는 “건전한 공기업 재정운영과 상·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해 이달부터 단수

조치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말 기준 순천지역 상·하수도 체납자는 1950가구로 체납액만 6억6388만원에 이른다. 순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43

조 제1항과 관련해 단수대상은 2개월 이상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순천시는 그동안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상·하수도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실시하게 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를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위텍스,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요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

춘바람 춤바람

순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봄과 춤 주제 16일 문예회관



순천시립합창단은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7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봄과 춤을 주제로 가요, 뮤지컬,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춤곡을 합창음악으로 연주함으로써 싱그러운 봄과 합창으로 표현한다.

순천시립합창단은 ‘새봄’, ‘숲속에 새들이 울고’, ‘꽃의 왈츠’, ‘베사메루초’ 등을 합창하고, 재즈밴드를 특별초청해 춤과 함께 감동의 하모니로 펼쳐 보일 예정이다.

순천문화예술회관 관장은 “많은 시민이 이번 공연을 관람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접하고 즐겁으로써 마음의 풍요와 여유로움으로 느끼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람권은 티켓링크(http://seller.ticketlink.co.kr) 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판매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061-749-8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취약계층 아동 특기적성 살리기 호응

순천시 드림스타트 사업
피아노 등 9개 학원 연계

순천시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관내 9개 학원과 함께 운영 중인 ‘특기적성 학원연계’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관내 학원의 후원과 드림스타트센터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특기적성을 살리며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상

인원을 52명으로 확대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이화피아노, 한결음악, 우리들피아노, 뉴 바울피아노 4개 피아노학원과 용인대명문, 경희대석사, 현대, 용호, 첼피온 5개 태권도학원이 참여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관내 취약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꿈을 키워 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여성가족과(061-749-6606, 6615)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